

한국불교는 1700년이라는 유려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대의 전법과 구도의 열정은 어느 시대건 간절함으로 쉼이 없었으며, 조선시대의 억불정책에도 정법의 등을 꺼뜨리지 않고 밝혀 왔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부처님의 정법과 한국불교의 정체성이 훼손당할 위기 앞에서도 전통문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정신을 계도하는 자랑스러운 업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조계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총본산으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중요한 사찰입니다. 일제시대인 1938년 당시 자주적인 한국불교를 세우기 위하여 총본산으로 지금의 대웅전을 설립하고 한국 불교의 전통을 살려 북한산의 태고사太古寺로 명명한 뒤, 1954년 불교정화운동을 통해 지금의 조계사曹溪寺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조계사 창건역사와 유물 특별전을 개최하는 것은 불교 현대사에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 종단의 대표 사찰인 조계사 대웅전의 상량유물을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상량유물은 당시의 시대상,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뒤틀이, 비녀, 노리개 등 여성들이 썼던 장식품과 함께 대한제국 황태자 가례식 기념장 등, 근현대 유물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뜻 깊은 전시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불교중앙박물관장님과 조계사 주지스님께 감사드리며, 박물관 소임자들의 노고르 치하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기2557(2013) 5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